

대학기본역량진단서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2022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받게 돼



▶DSU 심볼 기념물

이달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진단은 진단에 참여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우리대학은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일반재정지원으로 선정된 일반대학은 오는 2022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게 된다. 정월 자율조정 권한과 함께 연간 평균 48억 3,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 모든 국책사업 신청이 가능해 특수목적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등의 혜택이 있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지표별 강·약점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일반재정은 정부가 대학별로 세운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교육과 더불어 산학협력 혁신, 학생 역량 강화 등 대학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광범위하게 쓸 수 있다.

대학 역량평가는 최근 3년간 핵심적인 교육역량 및 성과에 대한 정량 진단 점수와 정량적 정성 진단을 실시한 점수를 합산하고 부정·비리 등에 감점 사항을 적용해 진단 점수를 매겨 총 233개 대학을 선정했다.

정량 지표 진단은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 중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에 대한 평가로 대학의 기본여건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모적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 참여대학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만점 기준을 사전에 제시했다. 정량적 정성 진단은 정량 지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에 대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진단위원이 지난 3년간의 구체적인 객관적인 실적자료와 증빙을 토대로 정성 평가를 거쳤다. 1개 대학당 총 45명의 위원이 평가하였으며, 대학 측 담당자 9명과 90분간의 비대면 온라인 진단을 통해 대학의 소명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한편 우리대학은 2018년도에 역량 강화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글로벌 경험 ▲글로벌 강의 ▲인공지능(AI) 활용 외국어교육 ▲글로벌 커리큘리 ▲특성화 교육 ▲월드클래스 강좌 ▲최고의 현장형 교육환경 ▲혁신기 양성 ▲개인별 부캐 개발 ▲미래 커리어 개발 ▲원스톱 창업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우리대학은 신 대학 개념을 선언하면서 미래형 대학의 모습으

로 또 다른 캠퍼스를 만들어 시공간을 뛰어넘는 학습을 실현해 이른 중심의 온라인과 실습 중심의 오프라인을 함께하는 혼합형 수업을 전면 도입해 24시간 교육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다. 또한, 교내 현장시스템을 통해 해외 현장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체험 교육을 하며 산업계 최고 명장을 온택트로 연결하는 CIC(Class In Clas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실험실습이 가능하게 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을 캠퍼스에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로 나아가는 미래형 대학으로 변화하고 있다.

조수연 기자
mingki8702@naver.com

국내 대학 최초 세계 3대 광고제 석권

우리대학 학생들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려



▶우수한 학생들 모습

우리대학 LINC+사업단의 융합 캡스톤 디자인을 수행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국내 대학 최초로 전 세계 3대 광고제를 석권했다. 클리오 광고제, 칸 국제광고제, 뉴욕 페스티벌은 세계 3대 광고제로 분류된다. 2021 클리오 광고제 은상 수상에 이어 뉴욕 페스티벌 본선에 2개 작품이 입상해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됐고, 칸 국제광고제에서도 본선에 입상해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면서 우리대학 학생들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렸다.

2021 클리오 광고제 수상작 <brused Doll(병드는 인형)>은 권정아·김로아·박재민·윤지혜 학생이 만든 작품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행하는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는 아이디어로 부모의 목소리와 단어를 인식하는 AI 기술을 인형에 접목해 고품격 목실 등의 언어적 폭력에 반응해 시각적 장치로 인형에 멍이 들게 해 언어폭력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고안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신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다.

뉴욕 페스티벌 본선 입상작인 <Animal Guardians(동물수호자)>는 손영민·임수빈·박가빈·김민서 학생이 동물의 도움을 빌려 산불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로, 울무 등으로 상처를 입어 다친 야생동물을 치료한 후 'Animal Guardians' 센터를 부착해 방생시킨다. 산 속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동물의 목에 부착된 센서가 이

를 감지해 화재 위치를 전달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다. 또한 Animal Guardians는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2021 레드닷 어워드(Reddott Award)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뉴욕 페스티벌과 칸 국제 광고제 본선 입상작인 <WEGO(우리는 간다)>는 임수빈·김대열·장지수·강동호·정지원 학생이 수상했다. 난덴도 스위치를 이용하는 레고 게임으로 조이콘을 동그란 판에 연결해 플레이하면 배경이 무작위로 설정되고 하나의 제시어가 나타난다. AI와 플레이어가 번갈아 가며 한정되지 않은 블록으로 창의적인 레고를 만든다. WEGO는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냈다.

3대 광고제 수상은 LINC+ 융합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이디어선 융합실습' 수업과정에서 나온 결과로 광고홍보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가 팀을 이뤄 작업했다.

한편 우리대학은 그동안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Reddot Award에서 지난 6년 동안 총 13팀이 Winner로 수상했고, 20년 뉴욕 페스티벌 국제 광고제에서 Winner 수상,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5년 연속 총 6개의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나타내고 있다.

조수연 기자
mingki8702@naver.com

새롭게 바뀌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

모집단위 변경, 신설 학과 개설 등



▶우리대학 전경

우리대학은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입학 정원의 2,107명 중 90.6%인 1,909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은 면접이 없거나 면접일이 겹치지 않으면 최대 6개 전형까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다. 문·이과 교차지원이 허용되며 교차지원에 따른 감점과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 학점 이상이면 2학년 이후 전과도 보장한다. 다만 보건행정학과를 제외한 보건의료계열과 캠퍼스아시아학과는 불가능하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 중 변경사항은 일반계고교전형의 평가 방법이다. 기존 교과 90%, 면접고사 10%를 반영하던 것에서 교

과 90%, 출결 10%로 변경됐다.

교사추천자전형은 학생부 70%, 면접 30%를 반영한다. 실기전형은 학생부 20%, 실기 80%를 반영한다. 자기추천자전형과 SW융합인재전형은 학생부 60%(교과, 비교과), 면접 40%로 선발한다.

한편 교과성적전형과 특성화고교전형, 사회배려대상자전형, 정원외의 농어촌출신자전형과 특성화동일계출신자전형, 고른기회전형은 학생부 100%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은 2015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진로선택' 교과 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 모든 전형에서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 중 학년과 학기의 구분 없이 국

어, 영어, 수학 교과 중 상위 3개 과목과 전 과목 중 상위 7개 과목을 반영한다. 진로선택과목은 최대 2개 과목까지 반영할 수 있다. 진로선택과목의 등급처리 기준은 'A=1등급', 'B=3등급', 'C=5등급'을 적용한다.

2022학년도 모집단위 변동 사항으로 사회복지학부는 '사회복지학과'와 '청소년상담심리학과'로, 관광학부는 '호텔경영학과'와 '관광경영·컨벤션학과'로 분리가 모집한다. 반면 바이오제약공학과와 신소재화학공학과는 '화학공·신소재학과'로 통합해 모집한다.

명칭이 새롭게 변경된 학과도 있다. 동아시아학과는 '캠퍼스아시아학과'로, 정보

통신공학과는 '인공지능융합학과'로, 융합전자공학과는 '전자공학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됐다.

새롭게 신설된 학과로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예체능계열인 웰튼학과와 미래커리어대학의 예체능계열인 스포츠레저산업학과와 인문사회계열인 실용콘텐츠창작학과가 있다.

웰튼학과는 한국의 웰튼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현장 실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웰튼제과 스토리와 캐릭터디자인, 컨셉아트 등 웰튼 콘텐츠 제작에 특화된 교육과정과 국내 최고의 실무경험을 갖춘 교수진의 세분화된 교육과정, 최첨단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스포츠레저산업학과와 실용콘텐츠창작학과는 학생부 40%와 면접고사 60%를 반영하는 평생학습자전형과 면접고사 40%와 재적격력 60%를 반영하는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모집한다. 평생학습자 전형 및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합격자는 주중 야간 수업 및 토요일 수업으로 진행된다.

또한 계열이 변경된 학과는 게임학과가 있다. 기존 공학계열에서 예체능계열로 바뀌었으며 실기고사를 실시하게 된다. 실기종목으로는 기초디자인, 상황표현, 게임포스터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동서대학교 입학처와 진학사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021년 9월 10일(금)부터 14일(화) 18시까지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동서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수연 기자
mingki8702@naver.com

Q College 입학식 개최

메타버스로 향해 성공적인 첫 발걸음



▶Q College 입학식



▶입학식에 참석한 장재국 총장

'세상에 없는 대학 안의 대학, 부캐 양성 도전스쿨'을 신조로 하는 Q College의 1기 입학식을 9월 1일 가상캠퍼스 '버블라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진행했다.

이날 입학식은 ▲개식사 ▲기도 ▲축하 메시지 ▲학장 인사말 ▲신입생 대표 선서 ▲졸업생 축하 ▲총장 격려사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입학식에는 장재국 총장과 객원시 학장, 졸업생 대표 등 총 60명이 참석했다.

버블라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진행된 입학식에서는 뉴노멀 시대의 미래 교육에 대한 모습을 선보였다. 이는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는 Q College 학생들의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날에는 버블라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Q College '장기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를 진행했다. Q College에 선발된 54명의 학생이 총 10개 팀으로 나뉘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페퍼라스트로 만들어진 스테인드글라스와 종이비누 발열 팔찌, 버려진 옷의 활용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시 브랜딩과 여행 정보 제공 앱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날 종이비누와 변은 잉크의 특성을 활용한 '종이비누 발열 팔찌' 아이디어를 낸 오예

오 팀이 1등을 시상하였다. 심사는 학생 투표(50%)와 교수 평가(50%)로 이루어졌으며 상금은 ▲1등, 30만 원(1팀) ▲2등, 20만 원(1팀) ▲3등, 10만 원(3팀)으로 총 80만 원을 지급했다.

Q College는 '기후형 도전스쿨'을 표방하는 창의융합형 대학으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전공 외에 내면에 감추어진 개성과 열정을 살려 '부캐러티'를 갖게 하는 '부캐 양성 도전 스쿨'을 목표로 창업, 창작,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미국, 아시아, 부산을 거점으로 각 도시에서 한 학기 동안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국가별 협력대학과 Q College의 온·오프라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자유롭게 도전하고 학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Q College는 현재 대학 중심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케미캐스트와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을 위해 동백마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수연 기자
mingki8702@naver.com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레드닷 어워드 3관왕!

상위 1%, Best of the Best 수상 쾌거



▶레드닷 어워드 수상자들

우리대학 학생들이 2021년 레드닷 어워드(Reddott Award)에서 총 3개의 Winner 수상 쾌거를 이뤘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레드닷 어워드는 양질의 작품에 명예를 수여하는 공모전이다. 1955년 독일 베를린에서 디자이너 및 제조업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대회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가진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됐다. 이 대회의 수상작들은 국제적 전시를 위해 레드닷 디자인 뮤지엄에 전시된다. 2021년 공모전에는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약 8,000여 작품이 출품되었고, 세계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24명이 평정한 심사를 거쳤다. 수상작은 이영준, 이서영, 하은별, 조동하, 박준혁 학생의 'Smart Label Package', 안치현, 허선윤, 조호정, 이수연 학생의 'Teddy Buddy', 손영민·임수빈·박가빈·김민석 학생의 'Animal

Guardians' 작품이다. Smart Label Package는 작품이 아이들 우유 유통기한이라는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며, 또한 유통기한의 표기가 작게 되어 있어서 우유의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유 패키지에 변은 잉크를 도포해 유통기한이 10일이 지나면 'Milk'가 'Nil'로 바뀌는 '스마트 라벨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영준, 이서영, 하은별, 조동하, 박준혁 학생의 'Smart Label Package'는 Winner 수상작 중 상위 1% 수여하는 Best of the Best에 선정되어 더 의미가 깊다. 수상한 광고홍보학과 4년 이영준 학생은 "우선 이 상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음 한 번 없이 화목한 분위기로 함께해 준 팀원들과 저희 팀을 지도해 주신 류도상, 문미경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말을 하고 싶습니다. 'Best of the Best'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상인데 너무 행복하고, 이 수업의 처음부터 수상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치현, 허선윤, 조호정, 이수연 학생의 'Teddy Buddy'는 소아암 같은 특수 질환으로 장기 입원하는 아동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아동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길어진 입원 생활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좁은 병실은 아이들이 두려움 '간헐성'이라는 느낌을 주며, 외부로의 단절로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장기 입원 아동 환자들은 단순히 보호자가 아닌, 이야기하며 놀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들이 가장 친근하다고 느끼는 '인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병원 안의 아동 환자와 병원 밖의 친구들을 매진자로 이어주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광고홍보학과 안치현 학생은 "그냥 막연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아이디어가 실제로 수상하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공모전은 이미 참여한 경력이 있었지만, 국제공모전의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이라 작품을 등록하는 것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 이에 관련하여 교수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이에 매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손영민·임수빈·박가빈·김민석 학생의 'Animal Guardians'는 산불의 조기 발견을 하는 데 있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야생동물의 힘을 빌려고자 만들어진 작품이다. 각국의 동물 보호 협회에서는 일 년에 약 1만 마리 정도의 다친 야생 동물들을 구조한 뒤 치료 후에 방생한다. 이때 야생 동물들에게 Animal guardians 센서를 채워 내보내면 야생 동물들이 산을 뛰어다니다 산불이 발생해 일산화탄소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를 센서가 감지하고 불이 난 위치를 소방청으로 바로 전달한다. 소방청으로 전달된 정보를 통해 소방관들은 산불이 조기 발생한 위치를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다. 생명을 살리고 산불로 인해 겪게 되는 자연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Animal Guardians'는 세계3대 광고제인 뉴욕페스티벌 본선에도 입상한 작품이다. 소프트웨어학과 김민석 학생은 "학교에서 좋은 기회를 받아서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사실 디자인 쪽은 생소해서 쉽지 않았지만 좋은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뜻깊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학교와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기쁨을 드러냈다. 우리대학 LINC+ 융합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이메이션 융합 실습' 수업은 광고홍보학과(류도상 교수)와 소프트웨어학과(문미경 교수)에서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여 지난 7년 동안(2015년~2021년) 레드닷 어워드에서 총 16개의 작품을 수상하는 대기록을 남겼다. 생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공학과 광고의 결합이지만 우리대학은 이를 잘 활용해 학생들의 뛰어난 역량을 끌어냈다. 이번 결과로 인해 우리대학은 명실상부 디자인이 강한 대학임을 알렸다.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내 직업인 인터뷰 - 패션디자인학과 4학년 진영은 학생

디자이너브랜드 론칭



▶진영은 학생의 사무실

Q.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패션디자인학과에 진학하면서 디자이너브랜드 준비하고 있는 4학년 진영은입니다. 현재 우리대학의 드림아벨라 107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Q. 안병하세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패션디자인학과에 진학하면서 디자이너브랜드 준비하고 있는 4학년 진영은입니다. 현재 우리대학의 드림아벨라 107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Q. 직업 활동과 학업을 같이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4학년이 되기 전 진로에 대해 깊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했던 전공 과제를 훑어보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지금까지 배운 전공을 바탕으로 디자이너브랜드를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Q. 직업이 있는 상태로 학업에 열중하시는 데 그에 관한 장점이거나 단점이 있을까요?
A. 아무래도 전공을 바탕으로 한 창업이라 과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과제가 아닌 실제 상황이기에 때문에 좀 더 진중하고 신경 써서 과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전공 시간에 배운 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학교 수업 시간 외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바쁘고 힘들긴 합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직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

난 속에서 특히나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소비 형태나 다양한 부분으로 인해 차별화된 마케팅이나 브랜드에 많은 부담감이 있어서 힘든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저의 브랜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티스트들과 환경을 위한 패션 브랜드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환경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회사가 커져서 정말 많은 사람이 일하고 꿈을 이루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창업 및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학교 내외적으로 미리 해주면 좋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A. 1학년 때부터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뒤늦게 시작하게 돼서 꼭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내 창업지원단이 있는데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계획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니까 한 번쯤 창업 생각하신다면 상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과 창업교육, 장학 재단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장학금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다들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구인이 점차 어려워지는 청년층에게 멘토로서 간단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취업하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격증부터 토익, 인턴 경험, 교내활동 등 진짜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취업이든 창업이든 자신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와 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래은 수습기자

경찰의 꿈을 이루다

‘늦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



▶경찰행정학과 박석민 학생

Q. 합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A.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흔히 말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한국사나 영어 등 기본과목이라 하는 것들을 손에 잡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 처음 시작하면서 영어 알파벳 순서도 몰랐고, 한국사는 공룡이랑 사람들이 같이 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늦은 출발선으로 시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하루 10시간에서 14시간씩 매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합격이라는 결실을 얻기까지 많은 고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들거나 어려웠나요?
A. 기억 없는 마라톤인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빨리 달리더라도 도착지점이 예측조차 안됐습니다. 하루를 마치거나 쉬는 시간을 갖더라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고수라고 하는 수험생이나 베이스가 있는 수험생들 또한 공통적으로 갖는 불안감이나 이겨내야 했고, 저도 그것을 이겨내 합격이라는 쾌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해냈으니 누구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경찰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만큼 전공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A. 저희 학과는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고, 전공 공부도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한 학생이나 이미 업무에 종사 중인 선배님들의 조언들을 들을 수 있어 도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제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경찰이 되어서 입은 제복과 거의 유사한데, 제복을 입으면 제가 경찰이 되어 제복 입은 모습을 상상하게 돼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됩니다.

그 외에는 선배들이나 경찰이 먼저 되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간관계를 쌓는 게 좋았습니다.
Q. 면접을 보셨다면,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제가 면접 때 받았던 질문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성인이 되고 했던 일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스무 살에 경찰행정학과 입학 후, 한 학기만 보내고 의경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는 공부를 바로 시작해서 한 학기 다닌 학교에 대한 추억도 없었고, 경찰에 대한 노력만 해서 부끄럽게도 무엇을 했다고 말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임대하기 전 남는 두 달쯤 정도 동안 각박한 대우를 우습한 경력이 있어서 그것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경찰에 몰두했던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을 말하며 얼어붙어 가진 꿈이라 남들 보다 늦었지만 정성은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질문으로 저는 면접관들에게 제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흔히 이야기하는 압박 면접에서도 떨거나 긴장 없었고, 저도 그것을 이겨내 합격이라는 쾌감을 얻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배분을 경찰에 합격하고 중앙경찰학교에 들어오시면 아직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부서도 많고 계급도 많습니. 꿈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게 정

말 행복하고, 모험처럼 느껴질 테니 꾸준히 노력해서 좋은 동료로서 도와주세요.
Q.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A. 경찰공무원 시험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붙는 시험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217명 중 211등이었고, 고등학교 때 뒤늦게 다들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에서는 법 과목을 제외하고 C+였고 영어, 한국사 등 베이스 없이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면 될 때까지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결국 됐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불합격하면 경력의 공백이 생기고 그 틈을 채우기가 많이 힘들어 집니다. 도전하기 전에 깊게 생각하고 시작한다면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22년도 시험 개편이 되고 더 어려운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붙는 사람은 늘 있듯 그 본인들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 경찰 동기를 중에는 5년 공부하신 분, 10년 공부하신 분 등 수험 기간이 다양하고 나이도 30대 후반부터 40살까지 다양합니다. 그만큼 본인의 직장을 포기하고 도전하거나 언제까지라도 포기하고 도전하거나 언제까지라도 포기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분들 모두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대학 공부를 그만두더라도, 마치고 시작 하더라도 언제든 늦지 않으니 20대를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짧았지만 다시 오지 않을 대학교 한 학기가 스무 살의 큰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꼭 경찰의 꿈이 아니더라도 아프지 말고 건강히 원하시는 목표를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경찰 관련해서 조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경찰행정학과 사무실에 제 번호 연락하시고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미래의 PD, 방송국에 가다!

단기현장실습을 통해 실무능력도 얻고 학점까지!



▶부산 KBS



▶유튜브 부케부케 채널 로고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LINC+ 사업단에서 하계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상해보험에 가입된 기업단을 대상으로 실습 기관을 선정해 4주, 20일 동안 진행했으며, 참여 학생들은 학점(3학점)과 실습비를 지원받았다.
우리대학 LINC+사업단은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수행하며 학점을 인정해 주는 현장 중심 실무형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실무와 현장실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대학 신문사가 이번 LINC+ 하계현장실습으로 부산 KBS에서 근무한 방송영상전공 학생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고자 한다.
■방송영상전공 김다영 학생 수기
LINC+사업단에서 하계현장실습으로 KBS 부산에서 4주간(20일)의 현장실습을 다녀온 방송영상전공 김다영입니다. 저는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방송국의 전반적인 현장 시스템을 이해하고 영상제작 현장을 직접 견학 및 참여해봄으로써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희망하는 직무 PD(연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직업 선택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제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제나 역량을 배

우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미래 미디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준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현장실습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KBS 부산에 있는 동안 보도국 뉴스 7팀에서 시의성에 맞는, '김해공항' '무더위&열대야'를 영상으로 총 2편 제작하여 송출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인 '부케부케'에 예기스 버전과 모음집 (긴 버전)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제작 과정은 주제가 정해지면 80, 90년 대의 뉴스 기사를 찾아보며 그때 시대를 이해하고 중요한 키워드나 사건들은 따로 기록해두고 그 후 큰 틀을 정하고 해당 영상의 비디오투 자료를 찾아 변환 및 편집했습니다. 라디오 생방송, 뉴스특보(코로나19) 생방송, 뉴스 생중계, 유튜브 콘텐츠 촬영 현장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하계현장실습으로 저는 희망하는 근무지의 근무환경을 미리 체험해봄으로써 필요한 역량과 자세를 미리 알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느끼고 배운 것을 참고하여 제가 원하는 직무와 환경에 취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 미디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책 속의 풍경 - 애들이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시선



• 책 제목 : 애들이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 책 저자 : 미즈타니 오사무
 김현희 옮김
 • 출판사 : 에이지

최근 고등학생 6명에게 폭행 당해 30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분노하였으며 소년보호법 개정 및 폐지를 요구했다. 당장 열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2017년도에 소년 범죄가 총액에서 처벌 연령을 낮췄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번 애들이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라는 책은 일본의 한 교사가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며 겪은 경험을 풀어쓴 에세이다.

이 책에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나온다. 특이한 점이라면 탈선한 청소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드에 중독되어 헤어 나오지 못하거나, 몇 번씩이나 자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자신에게, 때로는 타인에게 향하는 분노를 미즈타니 오사무는 지켜보지 않는다. 자신을 찾아오는 청소년들과 직접 찾아가 만난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건네 준다. 한 번은 야쿠자 조직에서 학생을

빼내기 위해 그 자리에서 손가락을 잘라 내기까지 했다. 모든 구제가 순탄하지는 않았기에 결과가 반드시 좋지는 않았다. 본드에 중독되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아이에게 했던 무책임한 말은 죽음을 끌어냈다. 탈선한 청소년들에게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불우한 주변 환경이었다. 본드에 중독되었던 아이는 전 화, 가스, 전기가 끊겨 까니도 때우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아이도 있었으며, 초등학교 시절 따돌림을 당해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다. 특히나 애들이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라는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저자 미즈타니 오사무는 청소년의 탈선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있는 게 아닌 주변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걸 말하고자 하고 있다.

방송에서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들의 물의와 그에 관한 현재 대중의 의식, 청소년보호법 폐지 정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는 점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 하지만 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들의 미미한 형벌을 높인다고 해서 탈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실제로 1985년 11월 2일 미성년자 사형 선고와 집행이 있었지만, 청소년의 비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UN 아동 권리 협약 제37조를 보게 되면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 행위, 위협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나온다.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구문은 소년보호법 폐지를 통한 높은 형벌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또 매일경제 정희영, 흥해진 기자의 '법원, 일벌 대신 화해 유도... 재범률 절반' 기사를 보

게 되면 일반 사건 재범률과 회복적 사법의 재범률이 나온다. 회복적 사법은 13.6% 일반 사건은 25.2%의 재범률을 보여준다. 만약 소년범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재도전할 기회가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회복적 사법의 재범률이 일반 사건의 재범률보다 낮은 이유도 범죄자들의 재도전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년범들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저자 미즈타니 오사무가 말하기에 나가 탈선 청소년들을 선도한 건 스스로 속죄할 시간과 재도전 할 기회를 주기 위한 책임을 보았을 때, 저자 미즈타니 오사무는 청소년의 탈선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있는 게 아닌 주변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걸 말하고자 하고 있다.

성경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이 있다. 단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잘못의 크기를 분간하는 일 역시 우순한 일이지만, 사소한 잘못이라도 피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론 잘못을 비판하는 능력도 있었지만, 저자처럼 잘못한 사람이 반성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다림도 중요하다. 모두가 단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재, 과연 우리의 사회적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애들이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책을 나온 저자 미즈타니 오사무와 같은 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김래은 수습기자

이달의 영화 - 히든 피겨스



• 영화 제목 : 히든 피겨스
 • 영화 감독 : 데오도르 멜피

영화 <히든 피겨스> 1960년, 미국과 러시아의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이 벌어지던 시절, 천부적인 수학 천재 케서린 존슨, 프로그래머 도로시 본, 흑인 여성 최초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민식이 법 높이라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성경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이 있다. 단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잘못의 크기를 분간하는 일 역시 우순한 일이지만, 사소한 잘못이라도 피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론 잘못을 비판하는 능력도 있었지만, 저자처럼 잘못한 사람이 반성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다림도 중요하다. 모두가 단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재, 과연 우리의 사회적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애들이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책을 나온 저자 미즈타니 오사무와 같은 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

커로 지우고 국가 기밀이라며 그를 팀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듯한 말을 한다. 심지어 여자라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고, 자신이 참여한 보고서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한다. '유색인종 화장실'에 가기 위해 800m 가량을 움직여야만 했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어도 직원용 공용 커피포트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런 와중에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은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우주인이 되자, NASA는 비상이 걸린다.

메리 잭슨은 최초의 흑인 여성 엔지니어를 꼽는다. 현실을 잘 인지하고 있는 그는 안 될 것임을 알기에 늘 단념한 상태였으나, 주변의 응원과 상사 엔지니어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서관 전산행정실 팀장은 백인만 다닐 수 있는 헬프턴 고교 학위를 따야 한다고 하며 메리의 꿈을 향한 도전을 가로막는다.

유능한 흑인 여성 20여 명이 NASA에서 하는 일은 전산행정실에서의 단순 전산과 계산. 이들이 일하는 서관 전산행정실은 백인 여성들이 일하는 동관 전산행정실과는 다르게 좁고 허름하다. 도로시 본은 사실상 10년째 전산행정실의 주임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승진을 신청해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떨어진다. 그런 와중에 IBM이라는 대형 계산 컴퓨터가 나사에 들어오게 되고, 서관 전산행정실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떨어진다. 그들이 흑인 여성이기에 당하는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무릎길이의 치마, 낮은 구두, 단정한 진주 목걸이라는 복장 규정, 백인과는 다른 월급, 그리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백인들의 시선. 그들은 차별과 편견을 그러려니 하라는 말로 당연시한다. 하지만 영화 내내 이들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위기의 상황은 유쾌하고 능력있게 해결하고, 정직하고 슬기롭게 세상을 내다보는 모습을 보여 준다. 케서린은 검 은색 마커로 가려진 문서의 행간을 읽고 해독해 우주선의 올바른 궤도를 계산하고 공식을 만들어 우주 궤도 비행 프로젝트에 선발되기도 하고, 낙하지점을 계산해 우주 비행 성공에 큰 업적을 세운다. 또 메리는 헬프턴 고교 입학에 대해 청원을 내고 재판에 참석한다. 흑인 여성이 왜 백인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는지 이해조차 하지 않는 백인 재판관을 상대로 그의 의견을 말하고 설득한다. 비록 야간 수업일 뿐이지만 메리는 NASA의 엔지니어가 될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도로시는 IBM의 등장으로 전산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 이해하고, 흑인 여성이 컴퓨터에 밀려나지 않도록 교육한다.

흑인 여성이라는 소수의 소수 속에서 역사에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사회가 허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이전 세대와 같은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실제로 12년 전부터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을 앞서기 시작했다. 배우지 못해 차별받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20대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 격차 180만 원에, 흑인 내에서도 갖은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히든 피겨스가 큰 공감을 사낸 것도 이런 악화된 노동 시장 속 성별 불평등 때문이 아닐까. 현재 성에는 인종이 없고, 강인함에는 남녀가 없으며,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는 영화 속 대사처럼, 우리 내면에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김규리 수습기자

이번 추석, 슬기롭게 보내는 법

비대면 추석을 맞이하며



▶ 집에서 보내는 추석 포스터

▷ 사진출처 - 네이버 블로그 [럭스서비스]



▶ 접촉 최소화 포스터

▷ 사진출처 - 네이버 블로그 [럭스서비스]

추석은 음력 팔월 보름을 뜻하며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절이다. 추석이 되면 송편을 빚거나 한복을 입고 가족 다 같이 밤을 보낸다. 이 외에도 강남술래, 즐다리기, 소싸움 등 예부터 전해져온 여러 형태의 놀이가 있다.

이처럼 추석에는 다 같이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며 평안을 바란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모이기 힘든 상황이다. 가족, 친척들과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고 평안을 바라는 것을 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번 추석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집에서 보내기

이번 추석에는 고향을 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홈추석(Home+추석)'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비대면 추석'을 위하여 추석 연휴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방문하

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물세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에서는 인터넷 최저가, 단독 특가로 선물세트를 제공하며 쿠폰, 기부 이벤트 등 비대면 추석을 즐기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추석 때마다 하던 공연은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명절 때마다 하던 추모, 성묘도 실제 안치된 모습을 촬영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립립 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추석특집 비대면 공연, 전시, 행사 등을 한자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 페이지를 운영한다.

비대면 콘텐츠를 국민들이 집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이번은 '집콕 문화생활'의 추석특집 기획으로써 ▲공원에서 즐기는 가을밤 퓨전국악공연 '가을밤 달빛 공연(문화재청)' ▲'나무와 아이' 등 어린이 공연(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공공예술의 정수 '종모제례악(국립국악원)'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가족의 독특한 놀이문화를 소개하는 '가족 집콕놀이 공모전(문화부)' 등의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별초 또한 지역 조합에서 별초 대형 서비스로 대신할 수 있다. GPS와 묘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자취생들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송편

만들기 DIY KIT도 생겨나고 있다. 대형 마트나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직접 만들어 먹으며 명절 느낌을 주기 위함이다.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서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같이 안부를 전하는 건 어떨까?

접촉 최소화하기

요양병원이나 시설에는 방문 민화가 가능하지만 백신 접촉 시 대면 민화가 가능하다. 정부 정책에 따라 추석에는 백신 미접종자는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시장이나 마트 등 유통인구가 많은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를 피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한 줄 앞기를 시행해야 한다.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받지 않았던 고속도로 요금을 올해는 이통 제한과 방역을 위해 징하기로 했다. 휴게소 식당에는 테이블 가림판을 설치하고 한 줄 앞기를 실시하고 있다. 휴게소 바닥에도 간격 유지 표시등을 설치하여 거리 두기를 유도한다. 고속버스의 경우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좌석은 제한하지 않지만 창가 쪽 좌석을 우선 선택하도록 한다. 고속버스의 환승 휴게소 운영이 중단되며 터미널 혼잡을 대비해 승차 홀을 변경하는 곳도 있다.

한국 철도(코레일)에서는 접촉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추석 기간 동안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를 한다. 거리 두기를 위해서 창가 쪽 좌석을 우선 발매하고 내측 좌석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여부가 결정된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다. 역사는 하루 4회 이상 방역소독을 하고 승차차 객 동선을 분리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열차는 운행 종료 때마다 전체 소독하고 KTX의 경우 시간당 17회 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 생활화하기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환기를 자주 하고 밀폐된 곳에서 사람들과 모여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수시로 해야 한다.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발열 체크와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약 30초 이상 손을 씻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 팔 간격으로 거리를 뒀다. 기침은 옷소매에 하도록 하며 식당 및 카페에서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춰 포장 및 배달을 해서 먹도록 한다. 또한 사람들이 많은 장소와 시간대를 피하고 최대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고향집에는 최대한 짧게 머물도록 해야 하며 방역수칙을 따르며 실천해야 한다. 만약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보이면 이동하지 않고 집에서 3~4일 머물러야 한다. 이유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축제·공연 소식



체인징파트너

• 기간 : 2021.06.10. (목) ~ 2021.09.26. (일)
 • 장소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 주최 : 주식회사 조은아트플러스



수상한 흥신소 2탄

• 기간 : 2021.09.02. (목) ~ 2022.01.02. (일)
 • 장소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 주최 : 주식회사 조은아트플러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5회 정기연주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 기간 : 2021.09.14. (화)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제68회 부산네오피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기간 : 2021.09.16. (목)
 • 장소 :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주최 : 부산네오피하모닉 오케스트라



드보르작 탄생 180주년 기념연주회

• 기간 : 2021.09.25. (토)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아트뱅크코리아



11시 브런치 콘서트 - 파리 위드 러브

• 기간 : 2021.09.28. (화)
 • 장소 :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주최 : 금정문화회관



장수상회

• 기간 : 2021.10.02. (토) ~ 2021.10.03. (일)
 • 장소 : 소량센터 신관카드홀
 • 주최 : 전공이엔티

귀성길 대신 든든한 선물세트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지내기



▶롯데마트에서 준비한 비건 선물 세트

▷사진 출처-롯데마트



▶중이 소재의 난좌

▷사진 출처-시빅투스

오는 9월 21일은 연중 으뜸 명절인 추석이다. 오늘날 추석은 보통 그간 멀리 떨어져 만나지 못하던 친척, 가족들이 모여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거나, 함께 밥을 먹고 지난 안부를 물으며 가족들 간의 시간을 보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작년부터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성으로 인해 비대면, 거리두기가 권고되고, 외출을 삼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이 생기자 귀성길에 오르기도는 비대면으로 추석을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작년보다 위험성이 높아져 비대면 추석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찾아뵙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선물로 대체하는 소비

자들이 늘어나 선물 세트 판매량이 코로나 19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올해 설 이마트에서 2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선물 세트 매출이 약 80%, SSG닷컴에서는 약 210% 증가했으며, 첫 비대면 추석을 맞은 작년에도 프리미엄 선물 세트 매출이 2019년 대비 11% 증가했다. 확진자가 늘어남과 함께 거리 두기 단계가 높아지며 작년에 비해 비대면 명절 트렌드가 확산한 이번 추석에는 선물 세트 판매량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도 이런 트렌드에 맞게 추석 준비를 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고급 선물로 마음을 전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프리미엄 선물 세트 상품의 수를 늘렸다. 또 주소를 모르거나 직접 찾

아 쉽지 않아요도 선물이 가능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대상 상품을 강화했다. 과일이나 건강 식품, 생필품 등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선물 세트 외에 최근 소비 흐름에 맞춘 이색 선물 세트 역시 판매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마스크, 손소독제, 핸드워시 등의 선물도 갖게 보인다. 특히 최근 소비 키워드인 야누스 소비, 착한 소비, 가치 소비, 독특한 소비, 언택트 인민트족 소비 중 '가치 소비'를 추구하고 있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동물권을 생각하는 비거니즘,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열풍이 확산되는 추세다. 기존에는 고급스럽게 포장된 선물 세트 선호도가 높았다면, 최근에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고객이 늘

었다. 이런 소비 심리를 공략한 친환경 선물 세트도 지난 추석에 비해 인기이다.

전하는 마음, 행기는 환경

MZ세대 3명 중 1명(27.4%)이 간헐적 채식에 즐길 정도로 비건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유통업체에서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추석 준비에 바쁘다. 롯데마트에서는 비건 선물 세트, 캠핑 세트 등의 이색 선물 세트를 선보이는데, 그중 비건 선물 세트 '무빙 마운틴'은 식물성 소시지와 버거 패티로 구성돼 있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높아진 거리 두기 단계로 인한 배달 음식 이용 빈도 증가로 일회용 폐기물이 급증해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져 친환경적 선물 세트도

명답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뚜껑 없는 스텝 선물 세트, 상품 재매치를 통한 플라스틱 트레이 무게 줄이기 등 쓸데없이 사용되던 플라스틱을 줄이기도 하고, 종이 소재 '난좌'를 사용한 과일 선물 세트처럼 선물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기도 했다. 뚜껑 없는 스텝의 요한 스텝 뚜껑 반환 캠페인과 사회적 이슈에 발맞춘 상품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흐름에 동참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종이 소재 '난좌'를 사용하고, 스티로폼 대신 친환경 종이 패키지를 이용한 ESG 선물 세트도 환경 오염의 걱정 없이 추석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선물 가방도 친환경 종이를 이용해 제작하고, 가방에 인쇄하는 잉크도 풍기를 잉크를 사용해 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가성비 행기는 선물은 그만

추석 선물을 준비하는 건 온라인몰이나 대형마트만이 아니다. 편의점은 이제까지 프리미엄 선물 세트를 준비했는데, 이번 추석에는 이전보다 더 큰 스케일의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CU는 요트와 외제차, 이동형 주택 등 초호화 선물을 판매한다. 이번엔 준비한 요트는 현대요트의 BAVARIA 시리즈로 최고가 9억 6천만 원까지 있으며, 벤츠, BMW 등 고급 외제차 렌트 서비스도 선보인다. GS25의 경우 3천800만 원 상당의 2개짜리 다이아몬드와 1천만 원 상당의 6층 와인 세트를 판매한다. 세븐일레븐은 코로나19로 헬스장 등에 가지 못하는 고객을 겨냥해 홈트레이닝 세트를 준비했고, 이마트24는 순금 메달을 판매한다. 이는 외부 요인에 의해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보복 소비'

심리를 노린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소비 심리가 폭발할 것을 예상하고 내놓은 상품이다.

언택트 추석도 알차게

코로나19로 바뀐 것은 선물 문화만이 아니다. 비대면 추석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형성되면서 여러 추석 문화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하길 권장하고 있다. 귀성객, 성묘객 방문이 집중되는 봉안당과 추모 시설은 방문 자제를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e하늘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차례상을 차리고, 온라인 추모관을 만들거나 추모 글을 남길 수 있다. 또 별초 역시 농협,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는 별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가운데, 명절까지 비대면으로 지내야 한다는 점에 착잡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하지만 다양한 이색 선물 세트, 프리미엄 선물 세트 등으로 따뜻한 마음을 선물할 수 있도록 했고,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로 조상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명절 지내기로 하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갖은 방법들이 생겨났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상황이 나쁘더라도 우리는 이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몸도 마음도 건강한 추석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울한 마음, 명절 증후군은 모두 이겨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해 보자.

▷자료 출처 : 대학내일20대연구소 - '2021년 알아야 할 MZ세대 식생활 트렌드 세 가지' 보고서 김규리 수습기자

변화하는 우리대학 강의실

본격 미래형 강의실



▶VOICE 비즈니스실



▶비즈니스 미래실



▶건축공학과 미래형 강의실



▶Immersive Show Room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혁신적인 교육에 맞춰 우리대학은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교육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세계화 환경에 맞춰 글로벌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외에도 특성화 교육, 개인 개발과 같은 부분에도 힘을 쓰고 있다. 그에 맞춰 교육 시설도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우리대학에서는 새로운 미래 교육의 길을 개척하는 변화의 중심에 공간이 있다고 믿으며 다양한 미래형 강의실을 마련하고 있다. 공부를 하기 위해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가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습에 있어서는 공간의 중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대학 역시 학습과 공간의 연관성을 알고 있기에 이런 시도가 가능했다. 강의실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VOICE 비즈니스실

첫 번째로 소개할 미래형 강의실은 글로벌경영학부의 강의실이다. 글로벌경영학부가 사용하는 국제관 7113호의 이름은 VOICE 비즈니스실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의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경영학부가 속한 건물과 시설은 낙후되었다는 느낌을 주곤 했다. VOICE 비즈니스실은 교육 시설의 발전

및 변화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는 강의실이다. 기업 컴퓨팅 환경이 모바일과 클라우드 이동함에 따라 모바일 기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의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협업과 팀별 활동에 용이한 좌석 배치 및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했다. 실제로도 팀별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 책상에 8인까지 앉도록 배치했다. 개인의 장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모바일 환경을 구축했다. 기업의 오피스를 학교 내에 그대로 옮겨놓은 모습으로서 현장실습을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소통과 협업이 중요 시되고 있는 현재, 교수 및 팀원과 공유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이번 강의실은 가장 뚜렷한 강점을 지닌 강의실이었다.

비즈니스 미래실

두 번째로 소개할 미래형 강의실 역시 글로벌경영학부의 강의실이다. 글로벌경영학부가 사용하는 경영관 8402호의 이름은 비즈니스 미래실이다. 미래형 강의실답게 일반적인 강의실에서 벗어난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강의실은 공간의 한계를 넘는 소통 중심의 강의실이라는 특성을 가졌다. 유리 질판을 설치하여 브레인스토밍과 기획 등 아이디어 창출에 활용된다.

협업에 있어서도 유용한 팀별 테이블을 구성해 다목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선에서 무선으로 변경되었고, 공간 제약성을 해결하며,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경영학이나 비즈니스의 경우, 팀워크 학습과 실무연습이 필요하다. 이번 강의실은 그러한 부분을 잘 수용하며 더욱 알차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미래형이라는 이름으로 난잡하게 변화한 게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최적의 교육을 이루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새로운 환경과 다양한 매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제한이 없는 수업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한 책상에 5명 이상 앉을 수 있거나, 정면에 컴퓨터가 배치했다는 점을 눈여겨보며,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바뀌게 된다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건축공학과 미래형 강의실

세 번째로 소개할 미래형 강의실은 건축공학과 강의실이다. 글로벌빌리지 V602호에 위치한 이번 강의실은 실무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 현장과 연결하여 실시간 경험학습을 하는 데 있다. 미래형 강의실에서 카메라 촬영

을 하면서 국내 및 해외 현장에서도 카메라 촬영을 한다. 두 카메라를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화상연결함으로써 실시간 경험학습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방송국 뉴스 스튜디오를 디자인 컨셉트로 했다. 실제로도 화상연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큰 모니터가 강의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넓은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Smart Podium이라는 터치 패널을 사용해 정확하게 부드러운 터치로 조작할 수 있다. 쉽게 조작하는 색다른 도구들도 있는데, 감사추적카메라, 무선 마이크 캡, 스마트 미팅 프로그램 등이다. 강의실 역시 언택트 원격시스템 플랫폼의 표준화된 교육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기에 더욱 신선하게 다가온다. 이번 강의실은 실시간이라는 강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강의실이다. 해외의 교수와 우리대학의 학생이 이 강의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교육을 한다면 더욱 심도 있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만날 수 있다.

N-screen 기반 Immersive Show Room

마지막으로 소개할 미래형 강의실은 디자인학부의 강의실이다. 디자인학부가 사

용하는 디자인홀 9207호의 이름은 N-screen기반 Immersive Show Room이다. 교육역량 달성과 이에 대한 실현을 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팀별 프로젝트 창작 활동이 가능한 창의적 교육 공간으로 설계된 강의실이다. 실제로 강의실 벽에 멀티비전과 TV가 배치됐고 아래로 영화관의 좌석처럼 학생들의 좌석이 펼쳐진 모양이다. 일반적인 강의실에 비해 다양한 각도에서 수업을 듣고 수업 콘텐츠를 볼 수 있어 몰입도가 높다. PBL을 위한 협업형 강의실 구성으로 창문 쪽에 TV 두 대가 위치하고 6인 좌석이 다섯 개, 중앙에 빔과 글 벽에 멀티비전이 배치됐다. 이번 미래형 강의실은 디자인 제작-시연-감상-평가가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그에 장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특히나 공부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공간은 창작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강의실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래형 강의실은 주로 팀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전공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됐다. 특히 실시간 소통에 중심을 두

어 교육이 국내에 국한되는 게 아닌 해외 교육 시설과 원활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많은 미래형 강의실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대학에서 학생들의 전공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 필요한 능력은 협업심과 창의성, 독창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흔히 강의실하면 떠오르는 건 1인 1석으로 된 책상상의 강의실이었기에 이번 미래형 강의실은 낯설지만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다. 앞서 설명한 4개의 강의실 외에도 우리대학 내부에는 다양한 미래형 강의실이 존재한다. 미래형 강의실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이다. 이 때문에 졸업 전까지는 한 번 가보거나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모든 학과에 미래형 강의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대학이 발전하면서 모든 강의실이 미래형 강의실로 바뀌는 날이 올 것이다. 미래형 강의실로 우리대학의 미래를 열어가며, 동시에 우리도 전공을 살린 우리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건 어떨까.

▷사진출처-동서대학교 홈페이지
▷자료출처 : 동서대학교 홈페이지 김려은 수습기자



리뉴얼, 이제는 필요하다!

김소현(방송영상·1)

벌써 한 학기가 지나갔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캠퍼스의 낭만은 사라졌다. 대면과 비대면 혼합 수업을 들으면서 지나왔지만, 아직 학교에 대해 잘 모르고, 아는 사람들도 없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대학은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길러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청춘의 시간을 함께 즐기며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이라는데... 선배, 동창들은 얼골도 보지도 못하고, 교수님도 화면 너머로부터 볼 수 없으니 참 아쉽다. 점점 학생들의 수가 줄며 대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소식만 들려온다. 불안만 더 커지는 것 같다.

며칠 전 리뉴얼된 앱을 보게 됐다. '리뉴얼'은 생소한 단어였다. 부활, 회복, 재생의 이름을 갖고 있는 '리뉴얼'은 업계 용어로는 변화에 맞춰 매장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뜻에서 '리프레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로 홈페이지나 기업 매장에서 리뉴얼하는데 사람들의 취향과 트렌드는 지속해서 바뀌고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눈에 보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홈페이지를 찾기 때문이다.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리뉴얼을 하기도 하지만 편리성과 그 안의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대학교도 하나의 '기업'이 아닌가? 동서대학교는 이미 여러 사업과 투자를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글로벌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기숙사 시설과

선발 기준, 수강 신청 시스템 등 아쉬운 점도 있다. 학교 시스템이 불편하다는 의견들과 작은 논란이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성공한 기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집중한다고 한다. 고객의 요청 변화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원인을 파악하며, 고객들과 지속해서 직접 소통을 한다. 고객의 매출이 없다면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어쨌든 리뉴얼은 하지 않을만 못하다. 대학이 취업만을 위한 발판으로 남겨지지 않기를, 학생들 개개인의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학교로 리뉴얼 되기를 기대한다. 성장한 학생들이 뛰아가는 사회의 길은 분명 대학교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가, 학생들도 상황에 맞춰 자신을 리뉴얼해야 한다. 계속된 변화를 통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브랜드, 콘텐츠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 학생은 무난하게 수업을 듣고 연애하거나 놀러 갈 계획을 세운다. 나 또한 캠퍼스 생활을 즐기기도 싶었다. 아르바이트하며 친구들을 만나 술을 먹고 쇼핑을 한다. 세상에서는 지금부터 학업을 따지 않으면 큰일이다. 스펙이 어떨까, 취업이 어떨까, 말들이 많다. 뉴스에서 청년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별 관심이 없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열심히 다녀도, 성적이 중요할

까,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정말 학교 밖에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를 리뉴얼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아졌으니, 나에 대해 더 집중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뉴스와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이 왜 힘든지 깊은 고민 없이 힘들다는 사실만 부각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인프라 격차와 경제적, 문화적 환경 차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에 남은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지만, 그만큼 수도권 청년들보다 미래가 불안하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세상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실현하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먼저이다.

평생 내가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전공을 찾아 최소한 남들만큼은 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그렇기에 나를 리뉴얼하기 위해 대학 생활하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경험해보자. 경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 나 또한 리뉴얼하기 위해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외부 활동들을 열심히 참여하는 중이다. 대학 생활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을 찾는 일이, 리뉴얼의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시작되는 2학기에, 혹은 꼭 올해가 아니라라도 나를 리뉴얼 할 수 있는 동기를 찾길 바란다.

죽비소리

리-리뉴얼된 일상

안재원(광고홍보·2)

일상이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뜻한다. 즉 생활하는 데 익숙해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일상이라는 단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된 단어가 됐다고 해도 손색이 없다. 팬데믹 이전의 키워드는 여행, 모임, 콘서트, 집회, 화식 등이 당연하게 자리 잡혀 있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 거리 두기, 마스크, 모임 금지, 콘서트 취소 등의 키워드가 차지했다. 인간의 역사에 몇 번이나 바이러스들이 존재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고통스럽게 일상을 바꿔대는 바이러스는 처음이다.

팬데믹 이전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날마다 느껴지는 것만 같다. 해외 여행이 당연했고, 단체 화식이 즐비했으며, 대학생의 불타는 MT, 축제, 콘서트의 향연은 말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무리, 관중이라는 말이 있고 힘이 불끈 넘치는 단어들은 체감하기 어려워진 시대라 도래했다. 만약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뜨거운 온정을 마음껏 느끼고 싶다.

항상 발생하는 확진자와 변이 바이러스라는 일상에 노출된 우리는 이전 이전의 '일상'이라는 단어와 단단히 떨어져 있다. 집에서 활동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최선인 선택이자 배려, 상식이라는 사회의 의식과,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우울증도 생겨나 무언가가 끊어먹히는 기분일 때도 있다. 이제는 익숙해진 비대면,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소독, 1년 이 넘게 지속되는 피하고 싶은 일상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하지만 인간의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던가, 힘든 상황에 맞춰 뺏어나가는 인택트 기술과 함께 사람들은 함께 없지 않게 함께했다. 많은 플랫폼 안의 온라인 소통으로 사람들은 색다른 방법으로 소통을 떠나갔다. 서로가 많은 이야기를 온라인에 기록하고 풀어나가고, 소비하는 일상이 유연하게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원래 리뉴얼이란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을 품고 있다. 한국어로는 부활, 재생, 회복 정도도 표현할 수 있겠다. 코로나19로 뒤바뀐 일상은 일상의 리뉴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러한 팬데믹을 리뉴얼이 아닌 리-리뉴얼(Re-renewal)이라고 표현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이러스가 없었던 시대보다 한층 더 세로워지거나 나아진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으면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우회되어 새 단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회라는 뜻을 담아 리(Re)를 하나 더 붙여 리-리뉴얼(Re-renewal)이 된 것이다.

분명 이런 리-리뉴얼된 일상에 단점이 훨씬 많은 자리를 차지하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한 이 일상의 장점을 들여보겠다. 첫 번째,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으로 인해 감기 환자가 줄어든 것이다. 두 번째, 불필요한 모임과 행사, 이동이 줄어든 것이다. 꼭 필요한 모임도 존재했지만, 일부 지나친 밤 문화, 화식 등이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사람인에서 직장인

1,549명을 상대로 '코로나 통금에 대한 의견'이라는 주제에 대해 설문한 결과 '불필요한 직장 화식 사라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위의 두 가지 장점은 기존 상황에 비교한 장점이다. 하지만 나는 팬데믹으로 인한 아쉬운 점에 비해 배우게 됐다는 면에서 마지막 장점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교감의 중요성을 알게 됐음을 꼽았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관계가 형성돼야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를 뒷받침하는 것이 교감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화연 위에서 만나는 일과 마스크로 교감을 가린 채 교감하는 일이 잦다. 마스크는 소통을 담당하게도 하지만 소통을 담당하게도 한다.

더하여 거리 두기, 가림막이라는 형태가 물리적 거리를 넘어 심리적 거리까지 서로를 더 멀게 느껴지게 한다. 이러한 리-리뉴얼된 일상이 원래의 일상의 교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준 매우 확실한 장점이 되지만, 원래의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두렵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며 이미 앞질러버린 힘든 일상에서 보석이 될 수 있는 작은 모래알이라도 찾으려는 노력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노력을 하는 일상이 거듭될수록 빛을 뿜는 보석이 되는 건 나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리-리뉴얼된 일상이 다시 리뉴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난 그간 화면에 비친 나를 마주한다.

이달의 명언

현재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마쉬루 스피노자

젊음은 과소평가할 때 나이는 어리석고 부추어질 것이 되고 만다.
-조앤 K. 록킹

시간은 인장이 쏙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다.
-테오프라스토스

사설

불법복제, 나부터 시작하는 저작권 지키기

불법복제는 남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나 정보를 사전 허락 없이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서 회사에서 불법복제 방지 시스템을 만든다. 하지만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을뿐더러 방지 시스템을 강화시키게 되면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 어려움이 많다. 불법복제가 문제인 이유는 남이 정성 들여 만든 저작물을 노력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산업 발전에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는 요즈음 브랜드 위조나 불법 복제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8월 23일 기준 온라인 위조상품 중 단속된 건수는 13만 7382건에 해당한다고 한다. 2019년 기준 1만건 미만에 머물렀던 것을 생각하면 적발 건수가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원본보다

화질이 낮게 공유되었던 것이 현재에는 원본 못지않을 높은 화질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원인 중 하나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상영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디어 융합단체 '창의성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봉쇄령 이후에 불법적으로 영화나 TV 쇼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방문자 수는 지난해 1370억 회를 넘었다고 한다.

굳이 사용자들이 불법적으로 복제된 영화나 웹툰, 게임 등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영화(41%), 방송(26.9%), 출판(24.4%), 게임(24.2%), 음악(17.8%)으로 많았다고 한다. 불법으로 복제된 것을 이용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대부분이 무료이거나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는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게임 산업의 경우 약 17조원으로 2019

년 대비 20% 가까운 성장세를 가져왔다. 외부 활동이 줄고 집에서의 여가 생활이 늘어난 이유도 있으며 구글, MS 등 인터넷 기업이 구독 서비스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투자한 것도 한몫했다. 콘솔 분야에서는 '동영상'으로 인기를 끈 닌텐도의 스위치가 대폭 성장했다.

게임 불법복제물은 온라인 게임 불법복제물과 오프라인 게임 불법복제물로 나뉘는데 온라인은 토렌트, SNS 등으로 다운로드 되거나 별도의 자체 서버를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오프라인 게임은 온라인 소용품, 노점상 등에서 외장하드, 칩 등의 매체에 복제되어 유통된다. 또한 레트로 게임이라고 불리는 소형 게임기가 여전히 유행처럼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많은 게임들이 하나의 기기에 합체된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물이다. 게임 콘텐츠 이용자의 87.5%는 게임

불법복제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2.5%로 나타났다. 저작권 보호 종합 인식도는 4점 만점에 3.23점으로 전년 대비해서 소폭(0.03점) 증가했다. 게임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으로는 '게임 이용자(52.6%)'로 꼽혔으며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약 이처럼 저작권의 보호 의식이 낮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창작자들의 의욕을 가라앉히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으로서의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이용하고 권하게 이용하고 싶었던 이는 곧 사회 전체에는 복이 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이용할 경우 이를 생산한 생산자, 공유 사이트 운영자, 게시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를 이용한 이용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복제를

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이용하락을 받기 위해서 정당한 기준을 채워야 하며 불법복제물이 경우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조건 등이 있다.

불법복제물의 유통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야 하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윤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불법복제의 이용 형태 외에도 핵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저작권 침해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게임에서 새로 등장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신이 힘들어 만든 저작물이 나도 모르는 새 어딘가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고 나의 노력이 그만큼 보람과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 저작물이 합법적인 생산물인지 불법적으로 생산된 것인지 인식하고 확인하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컷 만화

리뉴얼



목회칼럼



유 의 신 교목실장

금년 표어를 부여받고 반환점을 지나서 가을 학기에 접어들었다. 이사가 43장 18-19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 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길을 내리니.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새롭게 펼쳐질 미래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비록 광야 같은 그리고

다시 시작

사막 같은 만만찮은 장애들이 있게 될지라도 이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기도하고 약속하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미래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19와 같은 현실을 보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 디딤 용기가 없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표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첫째, 이전 일과 옛날 일을 뒤로하고 미래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디지털 전자 기기를 다룰 때 영키로 멈추면 리셋(reset)을 하거나 리부팅(rebooting)을 하면 풀리게 되는 것과 같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넘어짐과 실패의 기억으로 아파하며 준 용기를 잃어올 수 있다. 과거는 과거에 묻어 버려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독보적인 존재로 나만을 위한 생애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to)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for)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리 원(only

one)으로 특별하게 사용하시려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하나님은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라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특혜와 특권을 허락하신 은혜를 입은 우리이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인도하심을 받아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역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앞을 보고 미래를 향하여 개척하는 사람은 문제를 정면(face it) 돌파해야 하는 것이다. 사막이 펼쳐지든지 광야가 놓여 있든지 우리는 부르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면 된다. 우리를 겁주는 수많은 신기루(蜃氣樓 mirage) 같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전진! 전진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내어 주시고 강을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성구로 칼럼을 마감하려고 한다.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뿔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3-14)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 학생 인터뷰 - 조수연 학생

코로나19 속 우리 대학의 길라잡이

우리대학 신문사 부국장 인터뷰



▶ 조수연 학생

우리대학 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고, 일어난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생이 혼란스러운 학교생활을 보냈다. 학교의 정보도 제대로 접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보로 알고 있어 혼동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교의 정보를 먼저 접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기구가 있다. 우리대학의 신문사다. 혼란스럽던 코로나19 속 우리대학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기자는 적지 않았다. 올해 새로 임명된 동서대학부 부국장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대학의 신문사가 했던 일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인터뷰해보았다.

Q.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서대학부의 부국장을 맡게 된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 광고홍보학과 3학년 조수연입니다!

Q. 동서대학부에 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동서대학부는 우리대학을 대표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신문을 발행하는 곳입니다!

Q. 기자 활동을 하며 학교의 정보를 미

리 접할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다른 학생들에게 신문으로 전달하는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위해 신문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신지 궁금합니다.

A. 동서대학부는 매달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신문사에 속한 기자들 모두가 기사 아이템에 대해 회의합니다. 기자들은 학교의 중요한 이슈나 새로운 정보들을 아이템으로 가져오고, 어떤 아이템이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지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회의를 통해 결정된 아이템들로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면서 서로의 기사들을 읽어봅니다. 그 과정에서 오타는 없는지, 문맥이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Q. 작년에 활동할 당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이었기에 조금 다른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활동 중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나 특이점이 있으셨나요?

A. 코로나19가 심각할 때는 신문을 무사히 발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신문이 발행되지 않을 가능성과 코로나19로 아이템이 잘 나오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블렌디드 수업을 진행하고 학교에 남아있는 것이 어려웠기에 학생들이 발간된 신문을 보기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회에서 신문사가 제작한 신문을 매달 PDF 파일로 전달해 전교생에게 공유를 해주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학생 인터뷰 - 이유진, 여의정 학생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만들 아이디어

한국관광레저학회 정기학술대회 우수상



▶ 왼쪽부터 여의정, 양태연, 이유진, 이근지 학생

우리대학 학생들이 한국관광레저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안고 돌아온 수상자들을 동서대 신문사에서 만나보았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현재 관광경영학전공 재학 중인 19학년 이유진입니다.
A2. 관광경영학전공 19학년 여의정입니다.

Q. 대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A1. 3학년 전공선택인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서 이동형 참여 공연관광 프로그램인 'All that film'이라는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공모전에 참가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번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됐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A2.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신청할 때부터 팀원들과 함께 만든 결과물을 공모전에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제물과 주제가 알맞은 공모전을 찾고 있었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 출품하게 됐습니다.

Q. 한국관광레저학회 정기학술대회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1. 한국관광레저학회에서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로 발표 및 토론을 하는 대회입니다. 이번 제55차 정기학술대회의 주제는 '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

역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이번에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제외하고는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대학생 아이디어는 발표 후 바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산 호텔 농심에서 발표회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대체하여 심사했습니다.

Q. 수상한 출품작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1. 저희 출품작은 'All that film'이라는 이동형 참여 공연관광 프로그램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BIFF 콘텐츠와 상영관들과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영화관광투어 및 버스투어로 기획했습니다. 'All that film'은 영화 로케이션 버스투어 상품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고안했습니다. 버스도 이동하는 동안 모니터를 통해 영화 관련 영상 및 정보를 제공받으며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투어의 코어 스팟에서 뮤지컬이나 무용 등 영화를 새롭게 재해석한 공연이 제공됩니다. 마지막 과정에는 영화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약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직접 연기자나 감독이 되어 체험하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커뮤니티 비프 애플리케이션을 대신으로 사용하며 SNS 이벤트도 기획되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나누어 자신의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코스에서 공연 관람을 비롯하여 미션 수행과 영상 촬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서의 브랜드 인식 강화, 코

로나19로 위축된 공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준비 과정에서 좋았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A1. 한 학기 동안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 장기전에 많이 지치기도 했고 저희가 머릿속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이미 존재하거나 실현 가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은 아이디어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힘들음을 느꼈지만, 마지막에 아이디어가 완성되고 점차 형태를 잡아갈 때 기쁨을 느꼈습니다.

A2. 좋았던 점은 역시 협업을 이루어 진행한 덕분에 짧은 시간 내에 켈리타가 좋은 결과물을 구현해 선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웠던 점은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촉박해 지기도 했으나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들을 선택해 과제물을 만들 수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Q. 우수상 수상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A1.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상을 받아 정말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추천해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공모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 놀랍고 출발점을 좋게 잡은 것 같아 자랑스럽습니다. 함께 같이 고민하고 힘내왔던 팀원들에게도 격려를 보내고 싶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한 번 더 팀원들과 함께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A2. 교외의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이 처음이라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 학기 동안 저희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도움과 지도를 해주신 박창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공모전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욕심도 생겼습니다.

Q. 마지막으로 여러 공모전,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떨어지더라도 많은 곳에 참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과제물로 완성된 것일지라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A2. 자신이 생각한 것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모두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김규리 수습기자

성경 속 이야기 - 요한계시록 일곱교회



▶ 현재 에베소의 모습

▶ 사촌질척 - 네이버 블로그 jiarre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 3장에 기록돼 있는 소아시아 일곱교회는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의 그리스도인 박해로 밧모 섬에 유배됐을 시, 예수님의 계시로 일곱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통해 각 교회의 상태와 그에 대한 칭찬과 책망, 권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 일곱교회는 지상의 다양한 교회 형태를 보여 주며, 초기 기독교의 7개의 중요한 교회였다.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아닌, 각 도시의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나 회중을 의미했다. 일곱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구성돼 있다.

에베소(Ephesus)는 인내라는 뜻으로, 가장 정통적인 교회이다. 현재는 셀주크(SELJUK)라고 불린다. 인내라는 뜻을 가진 에베소는 로마의 독립 행정으로 다스렸고 민주적 기능이 활발해 일곱교회 중 사랑과 봉사, 선교의 열정이 제일 앞선 교회다. 예수님께서서는 일곱교회마다 칭찬과 책망, 권면, 약속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칭찬받은 미덕으로는 선한 행동과 예수님을 위해 참고 게으르지 않고 인내함, 악을 미워함이다. 책망받은 죄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퇴보함이었다. 그로 인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권면을 남겼으며, 이를 지켰을 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2: 1-7)

서머나(Smyrna)는 '물약'이라는 항료에서 유래해 물약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이즈미르(IZMIR)라고 불린다. 서기 100년부터 313년까지 혹독한 핍박을 지른 시대를 대표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부활을 소망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을 들었다.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가장 부유하며도 칭찬받을 미덕을 꼽으셨다. 책망받은 죄가 없는 교회로, 장차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면과 함께 생명의 관을 주고 둘째 사랑의 해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남기셨다. (2: 8-11)

버가모(PERGMOS)는 높은 성이라는 뜻으로, 현재는 베르가마(BERGAMA)라고 불린다. 제우스의 생지이기에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 디오니소스, 아테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과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당 등의 우상숭배 신전들로 가득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 만큼 우상 숭배와 세속화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며 신앙을 고백하는 중인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믿는 믿음을 재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칭찬 들었다. 하지만 니콜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를 용납한 가지라는 권면을 남겼으며, 이를 지켰을 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

매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2: 12-17)

사데(SARDIS)는 낡은 물건이라는 뜻으로, 현재는 살 리히리(SALIHLI)라고 불린다. 물질적 풍요와 내적 타락으로 인해 극도로 형식적인 행함이 없는 교회였으나, 그 안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닌 소수의 자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은 교회이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책망을 받았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받은 복음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방법뿐이라며, 그됐을 시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셨다. (2: 18-20)

사데(SARDIS)는 낡은 물건이라는 뜻으로, 현재는 살 리히리(SALIHLI)라고 불린다. 물질적 풍요와 내적 타락으로 인해 극도로 형식적인 행함이 없는 교회였으나, 그 안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닌 소수의 자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은 교회이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책망을 받았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받은 복음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방법뿐이라며, 그됐을 시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셨다. (2: 12-17)

두아라(THYATIRA)는 희생, 정화하는 통탄스러운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아카사르(AKHISAR)라고 불린다.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인내를 칭찬받았지만, 성경 진리가 가장 왜곡되고 변질된 시기이며, 많은 핍박을 받았다. 또 신분주의를 떠나 인본주의에 쫓아 자칭 선지자라 하며 예수님의 종을 가르쳐 죄어 행음하게 한 이사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받았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왜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리라 약속하는 말씀을 들었고, 이를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2: 18-20)

라오디게아(LAODICEA)는 정의라는 뜻으로, 일곱 교회 중 마지막 교회다. 현재는 라오디게아(LAODICEA)라고 불린다. 라오디게아는 겉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형상이었다.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고 모든 종교 행동을 단순히 사교적으로만 보아 예수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며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책망하며, 열심히 회개하라고 권면하셨다. 이를 이기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3: 14-22)

김규리 수습기자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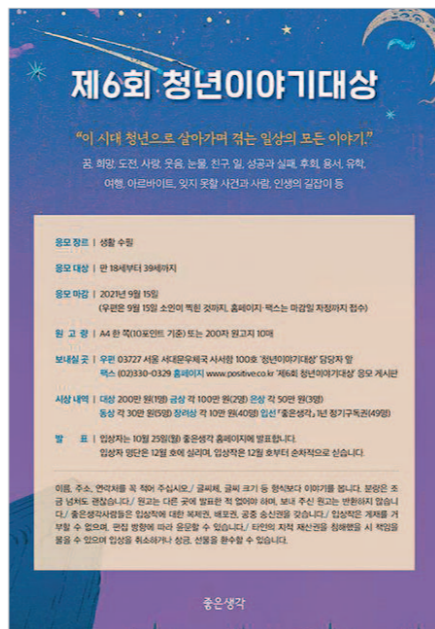
■ 기획자 달빛학교 경상·제주권 모집
 • 접수기간 : ~2021.09.14(화)
 • 응모대상 : 경상·제주 거주자 중 전통문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IT/소프트웨어/게임, 기타



■ LAON 통역팀 24기
 • 접수기간 : ~2021.09.15(수)
 • 응모대상 : 영어를 좋아하고 기본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대학생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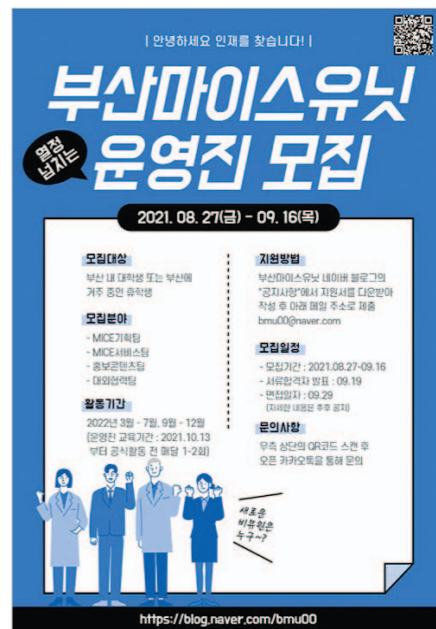
■ 제17회 도시농업박람회 싱그러운 집콕생활! 홈 플랜테리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09.15(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건축/건설/인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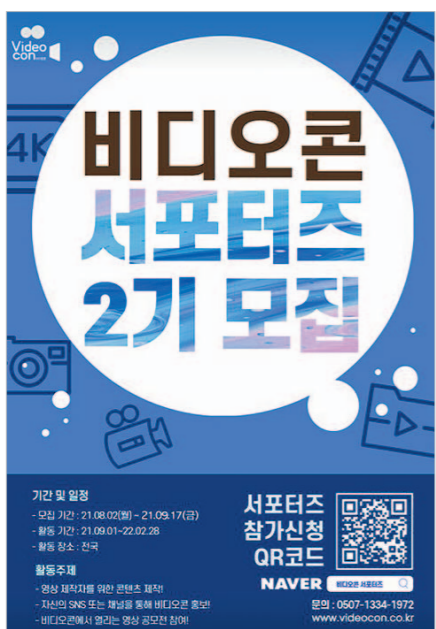
■ 제6회 청년이야기대상
 • 접수기간 : ~2021.09.15(수)
 • 응모대상 : 만 18세부터 39세까지
 • 공모분야 : 문학/글/시나리오



■ 2021 드림서포터즈(꿈지원사업) 모집
 • 접수기간 : ~2021.09.16(목)
 • 응모대상 : 만 19세~만 34세 이하 차세대 한민족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부산마이신유닛 운영진 모집 안내
 • 접수기간 : ~2021.09.16(목)
 • 응모대상 : 부산 내 대학생 또는 부산에 거주 중인 휴학생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비디오콘 서포터즈 2기 모집
 • 접수기간 : ~2021.09.17(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UCC



■ 제11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 공식유튜버 모집
 • 접수기간 : ~2021.09.17(금)
 • 응모대상 : 만 19세 이상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제7회 부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21.09.23(목)
 • 응모대상 : 창업을 준비 중인 고교, 대학 재학생 2~4인 팀단위 참가
 • 공모분야 : 취업/창업



■ 위트코리아 반려동물 콘텐츠 에디터 제6기 모집
 • 접수기간 : ~2021.09.26(일)
 • 응모대상 : 반려동물 양육하는 분
 • 공모분야 : UCC



■ 제7회 2021 한국신발디자인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09.27(월)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디자인/캐릭터/웹툰



■ 방구석 프로젝트 II 영상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09.30(목)
 • 응모대상 : 부산에 거주 중인 시민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동서인들이 뽑는 우수기사!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온 기사를 투표해 주세요.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코앞까지 불쑥 찾아왔습니다. 귀에 울리던 매미 소리는 다시 땅속으로 사라지고, 여섯 시간 때도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즐거웠던 방학은 끝나고 개강이 다가왔습니다. 2학기는 지난 학기보다 더 활기차게 보내 보는 게 어떨까요?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동서대학보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선하게 읽은 기사를 간단한 이유와 함께 보내 주세요.

예시

1면 대기기본역량진단서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혹은 조수연 기사

제목이나 기사 이름을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짧은 이유와 함께 아래의 번호로 보내거나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어 주세요.
 * 편집국장 : 010-6771-8237
 * 9월 29일까지 투표해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는 9월 30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 과 : _____
 • 학 년 : _____
 • 이 름 : _____
 • 연 락 처 : _____